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어버이 주일메시지

##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린이 주간이니까 수박 두 통을 사오라고 장난삼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난한 우리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학교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도 못사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선생님의 그런 부탁을 받고 저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쩔사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5월 초에 수박이 어디에 있어. 선생님이 장난삼아 하신 말씀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가면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어 번 말씀 드리다가 “선생님이 정말 사오라고 하셨는데..”라고 말을 흐리며 학교로 향해 갔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시장에 들어설 무렵이었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수박 두 통을 준비하지 못해 축 쳐진 어깨로 학교로 향해가는 모습이 측은하셨는지, 아침 준비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서둘러 뛰어 오신 것입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 오셨을까요? 어머니는 아침 시장 몇 곳을 돌아 결국 수박 두 통을 구해 오셔서 제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수박 두 통을 들고 가다가 문득 돌아본 그 자리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매일같이 산동네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라, 철야기도하시라, 남편 뒷바라지 하시라, 아침마다 6남매 학교 도시락 준비하시라 몸과 마음을 돌보실 틈이 없으셨던 가난하고 피곤한 어머니가 그 곳에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은 없으셨어도 “아들아, 너는 내 기쁨이야, 내 행복이야.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거대한 함성이 되어 내 영혼에 들려와 나이 오십이 다 된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피부로 느끼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본인들은 배고파도 자녀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기뻐할 때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더 많은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자녀 된 우리들의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인데, 성경은 효를 다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혹시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마치 부모님처럼 잘 모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 12대 장로, 13대 안수집사, 12대 권사 선출

## -5월19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지난 주 찬양예배 후 열린 제직회에서 공동의회에 추천할 제12대 장로후보 20명이 선출되었다. (아래 명단 참조) 아울러 다음 주 찬양예배 후 제12대 장로 10명, 제13대 안수집사 40명, 제12대 권사 80명의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게 되고 그 후보들의 사진과 신앙경력 등이 게재된 명단은 오늘 순례자에 삽지로 배부된다.

한편 장로는 공동의회 투표수의 2/3, 집사와 권사는 1/2 이상 득표자 중 위 선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종다수로 선출된다. 본 교회의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입교, 개종 포함)은 모두 공동의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1. 이동만



2. 송인권



3. 최형열



4. 오치열



5. 김금준



6. 김광룡



7. 주동재



8. 최차순



9. 최규초



10. 안인호



11. 김규태



12. 오유식



13. 원용규



14. 서경학



15. 이영희



16. 진교남



17. 홍일성



18. 김성준



19. 차도훈



20. 김은태

### 담임목사와 함께 하는 2013 터키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교회는 9월 24일(화)부터 10월 3일(목)까지 9박 10일 동안 터키 성지순례를 간다. 소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의 세계전도여행지를 중심으로 밧모섬까지 순례를 하게 된다. 성지를 순례하며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 성도들의 깊은 교제를 통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히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는 4번에 걸친 특강을 통해 더욱 알찬 성지순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비용은 290만 원으로 국제 항공권과 터키 국내 항공권, 크루즈 및 최상의 호텔과 식사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한 액수이다.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40명을 받고, 40명이 넘을 경우 80명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5월 20일(월)까지 보증금 20만 원을 내야 한다.

### 2013년 장한 어머니상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장한 어머니상을 시상하고 있다. 금년에도 부모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성도로서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2년 5월 1일부터~2013년 4월 30일)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장학금 통장을 오늘 아버지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시상한다.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4교구 권수정 집사(윤주아)
- 6교구 남미희1집사(배운주)
- 9교구 정수은 집사(심재하)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7]

(문 86) **하나님은 자기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짓말과 속임의 방법도 이용하시는지요? 예컨대 삼상16:2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답) 성경에 인간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삼상16:2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은 사울이 두려워 갈 수 없다하니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왔다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이새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5절) 이것은 그 당시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그 마음속에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피 흘리거나 폭격을 일으키게 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뜻을 누설한다면 사울은 사무엘 뿐 아니라 다윗과 그 모든 가족도 살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무엘은 사실을 완전히 고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보를 제한시켜 말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것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것을 사실대로 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정직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체를 다 말하기 보다 부분적으로 말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삼상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을 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 사울의 뜻에 반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에게 거짓말 한 것인가? 사울의 음식상을 피하간 것을 요나단은 다윗이 제사할 일이 있어 형들에게 갔다했습니다. 그것도 사실과는 다른 것이지만 다윗이 전체 의중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진리를 말함으로 위험이 올때 부분적 진리만 말할 함으로 그 말을 제한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아버지 주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선물로 보내주신 며느리 현정아~ 5월의 라일락꽃 향기처럼 은은하고 가냘픈 너를 바라볼 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아련함이 있구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몸뚱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중 심에 삶의 지핀로 가족을 돌보며 꽃송이 보다 더 예쁜 또한 나의 주님이 주신 선물~ 하연이 엄마로서의 너의 모습이 너무나 어여쁘고 대견스럽구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연이를 양육하는 너의 모습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세워지고 신앙의 계대가 든든히 이어감을 확신하는 기쁨이. 감사의 눈물로 흐르는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딸 현정아!  
 풍파 많은 세상살이에서 때론 지치고 힘이 들때는 감사로 ~ 우울하고 낙심될때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승리의 무기를 주셨잖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곧 소멸되어 버릴듯 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루트의 신앙으로 인하여 위대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 졌듯이 우리 믿음의 딸 현정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소원하며 슬기롭고 현숙한 아내 역할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엄마가 되어 주길 항상 기도 한다. 법사에 감사하고 씩씩이 기도하여 항상 기뻐하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자구나.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현정아!

사랑하는 어머님께..  
 봄내음이 가득했던 5년전 이맘때쯤... 결혼식을 몰려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오자마자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어머님과 제가 진짜 가족이 된지 어느덧 5년이 다 되었네요.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흔히들 생각하는 고부간의 어려운은 전혀 없이 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힘드신 내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무엇이든 칭찬해 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힘을 얻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네요. 또, 누구보다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축복받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결혼 전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착하고 지혜로운, 기쁨을 드리는 며느리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 저도 남편과 하연이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버님께 인도하는 예쁜 며느리가 될게요 앞으로 도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시어머니: 윤숙희 권사(6교구)  
며느리: 조현정 집사(5교구)

장한 어머니 상을 받으며

축복의 통로가 된 삼남매



권수정 집사(4교구)

제가 세 자녀의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째가 임신 되었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기쁨"이라고 태명을 짓고서, 하나님과 부모님, 주변 분들께 기쁨을 주는 주경이가 되길 바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저절로 법사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때문에 시프트가 되어서 새 집이 생겼고, 여러 가지 경사스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에 감사했고, 이 아이를 통해 모두가 평안하길 기도하면서 "평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째는 마치 엄마와 아빠의 좋은 점만 닮은 듯 예쁜 딸이었습니다. 생후 두 달이 지난 요즘, 주아가 자면서도 까르륵 소리내어 웃는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으며,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소중한을 실감합니다.



둘째는 다섯 살 터울로 주찬이가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로 키우겠다고 "영광"으로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둘째 녀석이 두 돌이 지나고 난 후, 이전 저도 육아에서 해방되어 직장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셋째가 태중에 자리잡고 있을 줄이야.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 삼남매 기쁨이, 영광이, 평안이를 기도 제복대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장한 어머니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겁지만,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귀한 상을 감사생활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정 장한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늦은 나이에 셋째를 가졌을 때, '내가 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은혜의 통로가 된 셋째

고등부 지도 목사 영어예배부 부지도 임명



고등부 지도로 수고하던 이종진 교육목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후임 고등부 지도에 천세종 목사를, 영어예배부 부지도로 Gaichuang Panmei와 VunZamCing 전도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자전거 필요합니다

영어예배부에 부지도로 부임한 Gaichuang Panmei와 VunZamCing 전도사가 교회에 자전거를 요청했다.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아세아연합신학교에 재학중인 두 분 전도사는 교회로 올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30분 이상 걸어야 한다고 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연락처 010-9420-3322 임흥수 집사)

교회 지하주차장 공사

교회 지하주차장 바닥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금주 중에 각 요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순례자에 게재한다.  
 · 월: 전 지하주차장 폐쇄 / · 화: 전 지하주차장 폐쇄  
 · 수: 지하1층, 2층 사용(3층 불가) / · 목: 전 지하주차장 폐쇄  
 · 금: 지하1층, 2층 사용(3층 불가) / · 토: 전층 사용가능  
 · 주일: 전층 사용가능

호산나대학-2013년 전국 장애인 제과기능대회 대상 수상

# 호산나의 품격



오승중 부장 (호산나 대학)

우리 호산나대학 서비스학과 김준호, 조승운 학생이 지난 4월 24일 제 2회 전국 장애인 제과기능대회 "슈퍼스타 Cake" 대회에 참가하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슈퍼스타 Cake" 대회는 성민복지관과 전국 제과인종연합회에서 주최 및 주관을 하는 행사로 지적 및 자폐성장장애인들의 제과기능대회를 통하여 장애인 파티쉐의 직업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3차 서비스 산업 직업군을 발굴,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만 16세 이상 20개팀(2인 1조)이 참여하여 '생크림을 활용한 케익 데코레이션'을 주제로 경쟁을 벌인 결과, 우리 호산나대학팀이 작년 은상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대망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회준비를 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호산나대학

을 널리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신데 대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크게 외쳐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아버지주일을 맞아서 교회학교(교육위원장:홍성주장로) 학생들이 특별히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유아부(지휘:한문영/반주:신아령), 유치부(지휘:도지혜/반주:김덕호), 어린이핸드벨(지휘:김선희/반주:홍혜란), 초등부연합찬양대(지휘:유수진/반주:박재원,권재화), 초등부글로리아 워십팀(지휘:홍하연)등이 "엄마,아빠 사랑해요"외의 10곡을 부서별로 나누어 찬양드린다.

##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8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수상 : 3교구 김문범 성도(김영표, 권소희 집사 아들) 육군1사단 전진훈련부대 사단장상 및 훈련최우수상
- 득녀 : 12교구 이범주 집사 박은진 집사
- 이사 : 4교구 전성숙 권사 강남구 논현2동 논현이안1동아파트 904호
- 이사 : 4교구 홍광숙 권사 강남구 수서동 동익아파트 802동 104호
- 주간식당봉사 : 빌립선교회(5.12) 안드레선교회(5.19)
- 금주의 식사 : 이우진 집사 김일순 권사 가정 이우태 성도 박정희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2013년 1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수료자 명단

### 서울음악교실(28명)

고윤상 권영빈 김미재 류영수 문한식 박명애 박윤옥 박은수 박창률 박창호 백나희 서정선 송대원 송영선 송인현 신금대 오세백 이경혜 이진화 전은성 전정희 채덕희 최재련 최창구 추현식 한명자 홍규석 홍영미

### 살롱경로대학(64명)

공진문 곽 속 국산옥 김경철 김기순 김덕자 김동두 김선자 3 김연정 김영진 김은희 김자경1 김혜경 김환라 나옥녀 남영숙 문가자 박경희 박동희 박두영 박봉금 박춘자 백명자 1 서귀용 소정부 송옥혜 신정순 신종진 심영숙 안창희 여옥기 오옥화 유복달 유순임 윤민현 윤정민 이경희2 이민화 이부자 이순환 이영수 이은상2 이재순 이춘자 장연순 전수자 전인화 정봉금 정병모 정애신 정미숙 조기순 진경자 최급자1 최무순 최봉애 최영순 최정옥 최죽희 최창화 최향봉 최화숙 한지종 황성운

### 시편반(19명)

곽 속 권애란 김자숙 성기원2 송명심 송민정1 송행희 윤정민 이영자8 이주영8 이해순 이해영 정기자 조애자 최급속 최종금 최종희 황선옥1 황수경

### 사무엘상반(21명)

강석조 김금준 김상태 김숙자1 김순진 김옥순 김은순 김현경 박석현 송미령 오지열 유선희 이강진 이계홍 이상호 2 이종창 장창수 정수환 정 속 최규초 최급봉

### 구약의 파노라마(28명)

권중학 김가순 김도훈 김병호 김장섭 김희자1 남상경 박길희 송미령 송안현 신호용 예치수 오상수 우승희 이성기 3 이신영 이원석2 이정숙6 이현우2 임근수 정승일 정종화 조애자 주동재 최관묵 최원석 최춘숙 한경삼

### 성경통독반(46명)

권은주 김경희10 김경희12 김경희14 김고은 김미중 김성은 김세미1 김숙영2 김영숙3 김용자1 김유정4 김인영2 김정자2 김정제 김정현11 남혜란 문정원 박계진 박명애 박현영 박화실 백영란 서해숙 송명심 윤정선 이로정 이미란 2 이윤진1 이은미2 이인숙4 이정민5 이주영9 이해순 이현주 12 이홍숙 장기숙 정미연 정부순 조애자 조정옥 최민자 최원자 추현숙 한은경 한효숙

### 교구일꾼양성반(12명)

공명례 김미재 김성미1 김순진 김은선3 김은주1 남재은 이경화3 이영란2 이영임 조은희 최유진

### 교사양성반(14명)

나인영 박경은1 박서정 박선영12 송명심 우선경 이신원1 이예원 임근수 임주현 정승균 제연주 조애자 차동길

### 주부대학(20명)

공명례 김경순4 김경아2 김경진1 김사라 김수원 김연순 김유정4 김인영2 나은숙 심미옥 여현주 이윤진1 이인숙2 전숙향 전영미1 정선경 조정옥 차수진 최춘숙

### 전도학교(25명)

고정례 김은연 김수임 김선규 김태옥 김상태 곽 속 김숙자1 김수진5 남경혜 박이선 서해숙 이윤자1 이현미1 임명숙 유복진 윤정민 장성자1 정수진3 정희영 정호희 정미애 진경자 최유진 황현숙

### 결혼예비학교(25명)

권오영 김가람2 김민서 김은정 김일두 김종윤 박나래1 박나에 박대우 박세린 사우연 성호진 손예원 신기조 신예성 1 양은지 엄창호 오민정 오태연 이한공 임경영 임지한 진보라 조봉석 정정화1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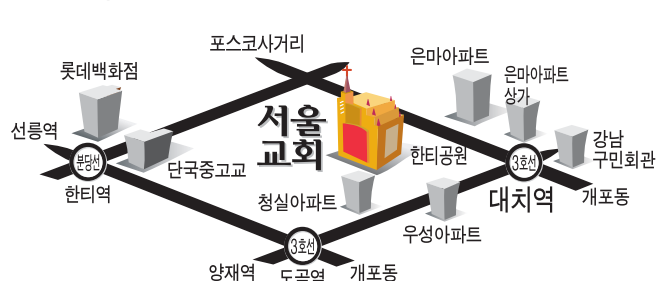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아버지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2. 5월 19일 주일에 있는 2013년 향azon직을 세우기 위한 선거 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사역 되도록
3. 목회자신학 세미나를 통해 도전 받으신 목회자들께서 각 지역에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선봉장이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